

사노피, 중증 아토피피부염 인식 개선 캠페인 '나는 가픈 사람입니다' 전개

- *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맞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 인식 증진 위한 환우 참여 캠페인 진행...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라우드(LOUD) 및 강영호 사진작가와 협업
- * 세 명의 환우 이야기를 담은 세바시 강연을 통해 질환 심각성 조명, 영상은 14일과 16일, 18일 세바시 유튜브 채널 및 사노피 아토피 인사이드에 업로드 예정

2020년 9월 14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가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9월 14일)을 맞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인식 개선을 위한 '나는 가픈 사람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질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우들이 겪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렵고 아픈 증상을 '가프다(가렵다)와 '아프다'의 합성어'라는 새 단어로 정의해 '나는 가픈 사람입니다'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사노피는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 라우드(LOUD)와 강영호 사진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우 3명(정원희, 조재현, 김용일)의 이야기를 CBS TV 교양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에서 공유하고, 질환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세바시 첫 번째 강연자 정원희는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환우들과 소통하는 블로그 채널 운영 스토리를 나눌 예정이다. 두 번째 연자 조재현은 질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사례를 안고 강단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소통'하는 래퍼 씨클, 김용일은 질환으로 인한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게 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세 환우의 세바시 강연은 14일 공개되는 첫번째 영상에 이어 16일과 18일 세바시 공식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cbs15min>)과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노피의 웹페이지 '아토피 인사이드(<http://www.atopy-insid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을 총괄하는 박희경 사장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극한의 가려움과 고통의 동반 증상 및 합병증으로 망막

박리, 백내장 등의 후유증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질환 정도로 생각하는 등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우드(LOUD)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 소장 이종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중증 아토피 환우들이 대중 앞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캠페인이 되도록 협력했다"며, "국내 최고의 사진작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장 대중적인 강연 무대 위에 서서 진정성을 갖고 소통함으로써 캠페인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강영호 작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명인과 마주하며 사진을 찍어 왔지만 환우들과 대화하고 사진 작업을 하면서 그들이 겪어 왔던 숨겨진 아픔을 발굴하고 렌즈에 담아낼 수 있었다"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사노피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들이 보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동기 부여 콘텐츠 플랫폼 '열정에 기름붓기'와 함께 일반 시민에게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일상과 어려움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 '이상주의보 -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를 진행, 사노피 임직원 대상으로도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내 캠페인 '우리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 Change A:D'를 전개했다. 올해 3 월에는 아토피피부염 질환 정보와 중증 환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웹사이트 '아토피 인사이드'를 오픈했다.

###

[사진과 캡션]

사진	캡션
<p style="text-align: center;">“ 나는 가쁜 사람입니다. ”</p>  <p>나는 멋진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p> <p>보통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p> <p>고통을 소통하는 래퍼</p>	<p>자신의 '가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중증 아토피피부염 인식 개선에 나선 캠페인 참여자 정원희, 조재현, 김용일의 모습</p>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